

긱(Gig) 경제의 부상과 금융권의 활용 방안

KDB미래전략연구소 미래전략개발부
이재준 (june97@kdb.co.kr)

- ◆ 최근 기업이 필요에 따라 단기계약직이나 임시직으로 인력을 충원하는 경제 형태인 긱 경제가 확대되면서 해외에서는 이미 긱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금융서비스를 제공 중
- ◆ 향후 긱 경제의 빠른 성장이 예상됨에 따라 긱 근로자의 특성에 맞춘 다양한 금융 상품·서비스 개발에 대한 논의 필요

□ 최근 긱 경제(Gig Economy)*가 새로운 노동 트렌드로 부상하면서 긱 근로자(Gig Worker)에 특화된 금융서비스의 제공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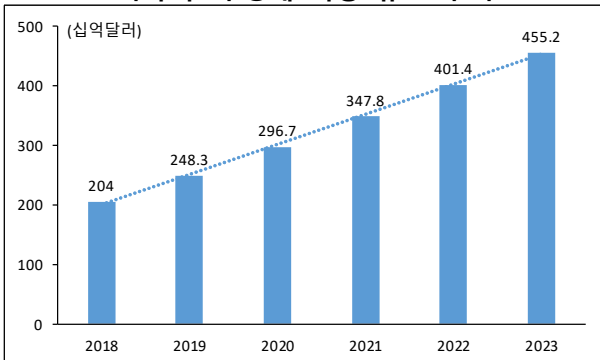
* '긱(Gig)'은 1920년대 미국의 재즈클럽에서 연주자를 즉석에서 섭외했던 형태에서 유래한 것으로, 긱 경제는 기업이 필요할 때마다 근로자와 단기 또는 임시로 계약을 맺고 고용하는 경제 형태를 일컫음. 최근 디지털 플랫폼의 성장에 따른 우버(차량 공유), 우버이츠(음식 배달), 아마존플렉스(일반인 배송기사) 등이 긱 경제의 대표적인 예

○ 이용자 중심인 온디맨드(On-Demand) 경제*의 확산으로 초단기 임시직에 대한 수요가 많아짐에 따라 긱 경제가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**

* 이용자의 요구에 따라 각종 서비스, 재화 등이 온라인 또는 모바일 네트워크를 통해 즉각 제공되는 경제 시스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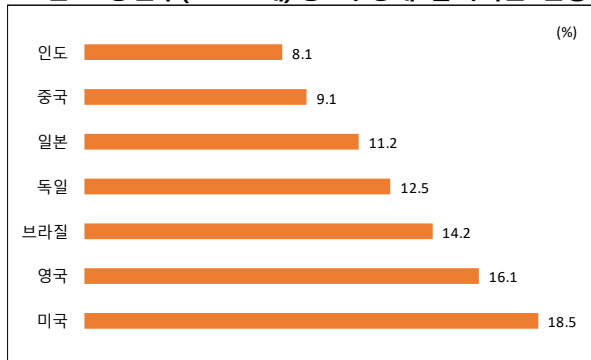
** 맥킨지는 '25년까지 긱 경제가 창출하는 부가가치가 전세계 GDP의 2%에 해당하는 2조 7천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면서, 약 5억 4천만명의 인구가 혜택을 입을 것으로 예상('15.6)

미국의 긱 경제 시장 규모 추이



주 : 2020~2023년은 추정치
자료 : Statista(2021.1)

'25년 노동인구(15~64세) 중 긱 경제 참여비율 전망



자료 : McKinsey&Company(2015.6)

○ 기존의 전통적인 장기 근로 계약 형태와 달리 자신이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만큼만 일시적으로 고용되어 일하는 긱 근로자*가 빠르게 증가하면서, 긱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금융서비스 수요 증가가 예상됨

* 근로 형태가 유연한 긱 근로자는 소득이 일정하지 않고 고정 수입원이 없어 정규직 근로자가 받는 다양한 금융 혜택들에서 소외될 수 있음

□ 해외에서는 이러한 각 근로자의 금융 수요를 인식하여 맞춤형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활발하게 제공하고 있음

- 해외의 디지털은행은 계좌개설, 대출, 여러 계좌의 통합 관리 등 다양한 측면에서 각 근로자의 특성에 맞춘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
 - 옥시전(Oxygen)은 수입이 일정하지 않은 각 근로자를 위해 예상 수입 산출 및 단기 대출을 제공하며, AI를 활용한 상환계획을 제공
 - 자우스트(Joust)는 각 근로자의 임금 체불시 자금을 지원해주는 서비스 제공
 - 오픈(Open)은 각 경제 친화적인 banking 앱을 제공하여 2분 이내에 당좌계좌를 개설할 수 있으며, 여러 은행 계좌 유지 및 매일 지출장부 관리서비스 제공

- 해외 인슈어테크* 스타트업도 특정 분야의 각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보험상품을 판매하고 있음

* 보험(Insurance)과 기술(Technology)의 합성어로 데이터 분석, 인공지능 등의 정보기술(IT)을 활용해 기존 보험산업을 혁신하는 서비스를 지칭

해외 각 근로자 맞춤형 보험상품 예시

회사명	국가	보장업종	보험상품 종류 및 특성
베리플라이 (Verify)	미국	예술, 운동, 건축, 컨설턴트 등	- 배상책임보험 - 보장기간을 시간 단위로 선택 가능 - 보장한도 및 추가 보장항목 등도 직접 선택하는 맞춤형 보험
제고 (ZEGO)	영국	음식배달서비스	- 스쿠터보험, 자동차보험, 배상책임보험 등 - 음식배달서비스 플랫폼과 제휴하여 각 근로자가 근무시 자동으로 보험상품 활성화
타폴리 (Tapoly)	영국	웹디자이너, 작가 등 전문 프리랜서	- 전문인 배상책임보험, 일반배상책임보험 등 - 보장기간을 일 단위로 선택 가능

자료 : 보험연구원(2019.5), "각 경제(Gig Economy)의 확대와 보험산업의 기회요인"에서 인용

□ 국내에서 각 근로자를 위한 금융서비스는 초기 수준*이나, 향후 각 경제의 빠른 성장이 예상되는 만큼 각 근로자가 필요로 하는 금융상품에 대한 다각적인 논의 필요

* 현재 국내에서는 보험상품('19.11월 KB손해보험이 배달의민족 등과 협업하여 시간제 이륜차보험 상품 출시) 정도만 제공되고 있음

- 다양한 온라인 플랫폼의 등장, 스마트폰과 앱으로 가능해진 광범위한 서비스 수요자와 공급자의 연결, 온라인과 비대면 업무환경의 확산 등으로 각 경제에 참여하는 근로자 수는 점점 더 증가*할 것으로 예상

* 최근 미국의 각 경제는 배달, 심부름 등 생활밀착형 서비스에서 교육(Udemy), 헬스케어(Doctor on Demand), 법률(Quick Legal) 등 전문인력이 참여하는 서비스로 확장되고 있음

- 빠르게 성장하는 각 경제를 겨냥하여 금융권은 대출, 연금, 보험 등 다양한 영역에서 각 근로자의 특성에 맞는 상품 및 서비스 개발에 주목할 필요